

# 뿌슈킨의 운문소설 《예브게니 오네긴》이 가지는 문학사적의의

엄 명 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가극 〈예브게니 오네긴〉은 로씨야의 이름난 시인 뿌슈킨의 운문소설을 각색하고 세계에 널리 알려진 작곡가 차이콥스끼가 곡을 지은 유명한 고전작품입니다.》

로씨야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 널리 알려져있는 뿌슈킨(1799-1837)은 로씨야의 근대문학의 개척과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대표적인 작가의 한사람이다.

뿌슈킨은 귀족출신의 진보적인 세계관을 가진 작가였다. 그는 로씨야인민들의 반침략애국전쟁이었던 1812년전쟁과 귀족출신선각자들의 진보적인 사회운동이었던 《12월당원운동》의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하였고 봉건적인 농노전제제도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고있었다.

그는 반동적인 짜리정부를 비판하고 자유에 대한 갈망을 반영한 여러편의 시를 쓴것으로 하여 1820년부터 1826년까지 류형생활을 하였다. 류형을 끝마치고 모스크바로 돌아온 그는 어느날 짜리의 호출을 받게 되었다. 짜리가 그를 회유할 목적으로 《만약 12월당원폭동이 일어났을 때 류형지가 아니라 빼제르부르크에 있었다라면 어떻게 행동하였겠는가?》라고 묻자 뿌슈킨은 주저없이 《나는 기꺼이 폭동자들의 대오에 서있었을것이다.》라고 대답함으로써 짜리의 간담을 서늘케 하였다.

뿌슈킨은 19세기 전반기 로씨야의 주요문학사조들이었던 진보적랑만주의문학과 비판적사실주의문학의 발생과 확립, 그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짧은 생애에 당시 로씨야 현실을 진실하게 반영한 많은 작품들을 내놓았다.

뿌슈킨은 창작의 첫 시기인 19세기 초엽에 당시 반동적인 로씨야전제제도의 현실을 폭로하고 자유에 대한 갈망을 강하게 표현한 진보적랑만주의경향의 시작품들을 많이 창작하였다.

12월당원들의 투쟁에 대한 지지와 공감을 표현한 시 《자유》, 《차아다예브에게》, 《씨비리로 보냄》과 로씨야짜리전제제도를 비판하고 자유에 대한 갈망을 반영한 서사시 《깡까즈의 포로》, 《집시들》이 그 대표적인 작품들이다.

뿌슈킨은 랑만주의적창작으로부터 사실주의창작으로 넘어오면서 운문소설 《예브게니 오네긴》, 비극 《보리스 고두노브》, 중편소설들인 《벨킨씨의 이야기》, 《스페드녀왕》, 《대위의 딸》 등과 같은 많은 산문작품들을 창작하였다.

이 작품들은 19세기 20년대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로씨야비판적사실주의문학의 확립에서 중요한 역할을 놀았다.

뿌슈킨이 창작한 작품들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작품은 운문소설 《예브게니 오네긴》이다.

운문소설 《예브게니 오네긴》이 가지는 문학사적의의는 무엇보다먼저 그것이 로씨야문학에서 처음으로 무용지인물형상창조의 발단을 열어놓은 첫 작품이라는데 있다.

무용지인물은 봉건적인 농노전제제도가 오래동안 존재해있었던 로씨야의 비판적사실주의문학에서 새로운 이채를 띠고 나타난 주인공이다.

무용지인물이란 부패한 귀족사회현실에 불만을 품고 비판적태도를 가지고있으나 귀

죽적인 환경과 교육의 영향으로 하여 아무런 유익한 일도 하지 못하고 쓸모없는 존재로 되고만 귀족출신의 인간들을 말한다.

무용지인물이라는 용어는 1850년대에 발표된 푸르게네브의 중편소설 《무용지인물들의 일기》가 나온 후부터 문학계에서 널리 리용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체르니셰브를 비롯한 혁명적민주주의작가, 평론가들이 널리 사용하였다.

뿌슈킨은 1830년에 운문소설 《예브게니 오네긴》을 창작하여 내놓음으로써 무용지인물창조의 첫 발단을 열어놓았다. 작가는 주인공인 예브게니 오네긴의 성격에 락후한 봉건사회현실이 낳은 무용지인물의 특질들을 체현시키었다.

봉건사회현실에 불만을 품고 새로운것을 지향하지만 귀족적인 생활관습과 교육의 후파로 하여 동요하고 주저앉고마는 예브게니 오네긴의 성격적특질은 그 시기 인간들의 중요한 성격적특질로 되었다.

뿌슈킨이 무용지인물주인공인 예브게니 오네긴의 형상을 창조하자 그의 뒤를 이어 많은 작가들이 무용지인물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작품들을 련이어 내놓았다.

레르몬토프의 장편소설 《현대의 영웅》, 게르젠의 장편소설 《누구의 죄인가?》, 곤차로브의 장편소설 《오블로모브》, 푸르게네브의 장편소설 《루진》과 《귀족의 보금자리》 등과 같은 많은 작품들이 그 실례로 된다. 이 작품들에서 빼초린(《현대의 영웅》), 오블로모브(《오블로모브》), 벨리토프(《누구의 죄인가?》), 루진(《루진》), 라브레즈끼(《귀족의 보금자리》) 등은 예브게니 오네긴과 함께 무용지인물주인공으로 등장하였다.

그리하여 로씨야비판적사실주의문학에는 무용지인물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작품들이 옹근 한 계열을 이루게 되었다.

운문소설 《예브게니 오네긴》이 가지는 문학사적의의는 다음으로 그것이 로씨야비판적사실주의문학의 발생과 확립에 크게 이바지한 작품이라는데 있다.

로씨야에서 비판적사실주의문학이 형성되기 시작한것은 19세기 20년대부터이며 비판적사실주의문학사조로서 완전히 확립된것은 19세기 40년대부터였다.

19세기 30년대에 창작된 뿌슈킨의 운문소설 《예브게니 오네긴》은 로씨야비판적사실주의문학의 형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것은 소설이 랑만주의적색채를 띠던 이전시기의 문학작품들과는 달리 사실주의적특징을 강하게 나타낸것과 관련된다.

뿌슈킨은 운문소설 《예브게니 오네긴》을 창작하기 전에 《농촌》, 《씨비리로 보냄》, 《차아다예브에게》 등과 같은 랑만주의시작품들을 창작하였다. 이 작품들에서 뿌슈킨은 짜리전제제도에 대한 강한 반향정신과 불만, 봉건적압제의 구속에서 해방될 자유의 그날에 대한 갈망을 반영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에 와서 랑만주의시문학창작으로부터 점차 사실주의적창작으로 넘어가면서 뿌슈킨은 운문소설 《예브게니 오네긴》과 같이 사실주의적특성을 강하게 나타낸 산문작품을 내놓았다.

소설에 반영된 사실주의문학의 특성은 우선 봉건적인 귀족사회와 귀족계급에 대한 비판에서 표현된다.

이전시기의 랑만주의작품들에서 작가는 봉건사회현실에 대한 환멸과 불만을 훌륭한 미래사회에 대한 리상과 대치시켜 주관주의적으로 표현하였다면 이 소설에서는 도시와 시골귀족들의 부패무능력과 사교계생활, 황폐화된 농촌의 비참상에 대한 사실주의적묘사를 통하여 봉건사회의 불합리성을 깊이있게 드러내었다.

도시의 전형적인 귀족청년인 예브게니 오네긴의 사치하고 화려한 사교계생활, 시골지주들인 라린과 렌스끼의 무의도식적인 기생층적생활, 시골령지농민들의 노예적인 생활처지에 대한 묘사는 멸망하여가는 봉건사회의 침체성과 낙후성에 대한 강한 비판으로 된다.

소설에 반영된 사실주의문학의 특성은 또한 예술적묘사수법과 언어표현수법에서도 표현된다. 작가는 생동한 환경묘사와 인물묘사를 통하여 귀족들의 부패한 생활을 진실하게 묘사하였으며 등장인물들의 개성적인 성격적특질도 깊이있게 드러냈다. 뿐만아니라 이전시기와 달리 현대언어에 가까운 세련되고 풍부한 언어표현들을 적극 리용하였다.

소설은 예술적형식의 측면에서도 운문소설이라는 새로운 형태를 갖추고 《오네긴식 시련》이라는 새로운 작시법으로 씌여짐으로써 산문문학발전의 새로운 단계를 개척하였다.

운문소설 《예브게니 오네긴》은 이러한 사실주의적특성으로 하여 당시 진보적량만주의와 교체되어 새로 등장하는 비판적사실주의문학의 발생과 확립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하였다.

《예브게니 오네긴》이 창작되던 시기에 그리보예도브의 희극 《지혜의 슬픔》, 크릴로브의 우화들과 같은 작품들도 창작되었으나 이 소설은 다른 작품들에 비하여 사실주의적 성격이 더욱 뚜렷한것으로 하여 초기비판적사실주의문학작품들가운데서 대표적인 작품의 하나로 되었다.

운문소설 《예브게니 오네긴》이 가지는 문학사적의의는 다음으로 그것이 로씨야근대문학과 민족문학의 발전에서 뚜렷한 지위를 차지하는 작품이라는데 있다.

로씨야에서 문학이 민족문학으로서의 면모를 확고히 갖추고 발전하기 시작한것은 근대문학에서부터라고 말할수 있다.

유럽에서 문예부흥기가 도래하면서 인문주의문학작품들이 많이 창작될 때 로씨야에서는 이 시기를 대표하는 성과작이 나오지 못하였다.

그러나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세계적인 사조로 퍼지고있던 진보적량만주의문학과 비판적사실주의문학과 같은 문학사조들이 발생하고 사상예술성이 높은 문학작품들이 많이 창작됨으로써 로씨야문학은 근대문학, 민족문학으로서의 자기의 면모를 뚜렷이 갖추고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뿌슈킨의 운문소설 《예브게니 오네긴》은 그 사상예술적성파로 하여 로씨야근대문학의 발전에서 뚜렷한 지위를 차지한 대표적인 작품으로 되었다.

운문소설 《예브게니 오네긴》이 창작되기 이전에 로씨야에서는 폰비진의 희극 《미성년》이나 까람진의 중편소설 《불쌍한 리자》, 라지쉴레브의 려행기 《뻬쩨르부르그에서 모스크바에로의 려행》과 같은 작품들도 창작되었다. 이 작품들은 해당 시기의 생활을 일정하게 반영하고 매 시기 문학사조적인 특징도 어느 정도 나타내고있지만 사상예술적인 측면에서는 미숙한 점들이 적지 않았다.

운문소설 《예브게니 오네긴》은 당시 사회현실과 인간들의 생활을 사실주의적으로 진실하게 반영하는 측면에서나 예술적일반화의 수준에서 볼 때 지난 시기 작품들과는 대비할수 없는 높은 수준에 있는것으로 하여 로씨야근대문학, 민족문학의 발전에서 확고한 자리를 차지한다.

그러나 운문소설 《예브게니 오네긴》은 일련의 시대적, 계급적제한성을 나타내고있다.

소설에서는 봉건귀족들의 부패하고 공허한 생활이 일정하게 비판되고있지만 귀족계급과 봉건제도자체를 반대하는 작가의 립장이 뚜렷하게 반영되지 않고있다.

소설에서는 사회의 반동성과 귀족의 부패무능력을 비판하는 주인공자체가 상류사회의 귀족청년으로 되어있다. 시인은 봉건사회의 불합리를 없애는데서 시골의 《량심적인》 귀족에게 기대를 가지는 그릇된 경향도 나타냈다.

소설에서는 봉건을 반대하는 당시 인민들의 투쟁이 반영되지 못하였고 사회적변혁을 위한 그 어떤 진보적인 활동도 제시되지 못하고있다. 작품은 주로 귀족의 무능력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현실에 대한 비판적태도를 보여주고있다.

또한 소설에서는 귀족계급의 호화롭고 사치한 생활이 많은 경우 무비판적으로 제기되고있다. 시인은 작품에서 변덕과 싸움질로 가득찬 귀족청년들의 연애이야기를 기본줄거리로 하면서 그들의 연애심리를 필요이상으로 파고들어 묘사하고있다.

소설에서 나타난 이러한 제한성은 귀족계급의 립장에서 벗어나지 못한 시인자신의 세계관적, 계급적제한성과 진보적인 사회발전에서 귀족출신의 선진분자들이 주도적역할을 놀수 밖에 없었던 당시의 시대적제약성에서 흘러나오는것이다.

뿌슈킨의 운문소설 《예브게니 오네긴》은 19세기에 창작된 작품이지만 로씨야문학발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작품으로서 오늘까지도 진보적인 문학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있다.